

● 『발명하는 사람들』에 말한다

발명! 도전해야 꿈을 이룰 수 있다

김병오

전국발명교육연구회 회장 [inv.or.kr/ajukbo@hanmail.net]



발명왕 에디슨이 2,000번에 가까운 시행착오를 거쳐 전등을 발명했을 때 “그 과정은 실패가 아니라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2,000 계단을 올라간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리스 신화 속의 이카루스(Ikaros)가 지중해에 추락사(墜落死)한 이래 인간은 중력이라는 자연의 법칙을 거슬러 하늘을 날고자 하는 비상(飛翔)의 꿈을 향해 도전하였고, 그 후 독일인 오토 릴리엔탈(1848~1896)은 13살 때 이카루스처럼 날개를 퍼덕거리며 날고자 시도한 이래, 베를린 근교에 높이 15m 인공언덕을 만든 뒤 글라이더를 지고 올라가 뛰어내리기를 2,000번, 글라이더 비행을 거의 익힌 상황에서 돌풍을 만나 150m 높이까지 솟구쳤다.

인간은 중력에 의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는 운명을 타고났다. 그러나 릴리엔탈이 중력(重力)과의 싸움에 쏟은 도전정신이 있었기에 비행기에 대한 발명은 계속되어 1903년 미국인 라이트 형제의 동력비행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비록 36m를 날고 12초만에 끝난 비행이지만 인간의 하늘을 날고 싶다는 도전은 계속되었다. 그로부터 100년 후, 더 멀리 더 높이 날고자 하는 도전은 거듭돼 오늘날 초고속 항공여행이 일상화되었다. 결국 끝없는 도전이 꿈을 이룬 것이다.

도전에는 시기가 있을 수 없다.

“몸이 아프고 피곤해도 요리만 하면 힘이 솟고 신바람이 나요. 나중에 우리 나라 음식으로 퓨전 요리를 개발해서 세계적으로 보급하고 싶어요.” 지난달 13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한 한식조리기능사 국내 최연소 자격증 취득자인 초등학교 5학년 김물결양의 당찬 포부다. 현재 양식조리사 자격증도 준비하고 있어 주의를 놀라게 하고 있다.

“스피커로 내 수검번호와 이름이 나오고 합격을 확인하는 그 순간이 세상에 태어나 가장 기쁜 때였던 것 같아요. 오빠도 하늘나라에서 많이 기뻐했을 거예요.” 갑작스런 오빠의 사망이라는 어려운 상황을 요리에 도전하면서 극복했고, 결국 두 차례의 불합격 후 세 번째 도전에서 당당히 합격했다.

“생활 주변에서 흔히 발견되는 불편한 점이 모두 아이디어의 원천이며, 수많은 아이디어는 생활 속에 있다. 우리가 단지 그냥 지나쳐버릴 뿐이다. 그러나 나는 무언가 새로운 생각이 떠오르면 그날 밤 집에서 도면을 그리고 샘플까지 만들어 실제로 사용해본다”는 ‘발명일기’를 발표한 경남 창원시 반지동의 김명각(58)씨.

그는 “평생을 바쳐서 일으켰던 중소기업이 망하자 주변 사람들로 부터 듣기 어려운 소리도 듣는 등 마음고생이 심했다”며 “한동안 고민한 끝에 어렸을 때부터 항상 새로운 것에 호기심이 많았던 기질을 살려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지적재산을 쌓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온 위기 속에서 그동안 숨겨왔던 ‘끼’를 살려 새로운 분야에 도전한 그는 환갑을 앞둔 나이에 작년 한 해 동안 117개의 실용신안 및 특허(수도관에 흐르는 물을 이용한 발전기, 부채모양으로 접어 읽기 편한 부채신문, 손톱이 튀지 않는 손톱깎이, 국기가 내장된 조립식 국기봉, 멜빵이 고정된 유아용 옷)를 출원하였다. 그는 “진정으로 지적재산을 인정하고 가치를 올바르게 평가하는 사람과 함께 사업화에 성공하고 싶다”며 “대박을 노린 투기가 아닌, 성실한 ‘땀’이 성공하는 사례를 만들어 발명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것”이라고 말한다.

이처럼 도전에는 시기가 없다. 발명은 도전하는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멋진 선물이다. 사실 지금 꿈이 무엇이나는 질문에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는 교통수단을 개발하는 것”이라고 답하고 싶은 사람이 많을 것이다. 혹자는 “어리석은 망상이며, 허황된 꿈이다”라고 말하겠지만 그런 꿈을 갖고 있어야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 아닐까?

도전해야 얻을 수 있다.

야구선수 마해영은 데뷔 후 8년만에 처음 골든 글러브를 받았다. 올해 그는 한국시리즈 우승과 골든 글러브를 동시에 그것도 처음으로 받게 돼 너무나 기뻐했다. 그러나 그는 기쁨을 느끼기 전에 한가지 약속을 했다. 그 약속은 바로 “은퇴 전 꼭 한번 홈런왕에 도전하고 싶다”는 것. 그는 8년 동안 타격왕을 비롯한 많은 타이틀을 경험했으나 내년 시즌 40홈런을 목표로 홈런왕에 도전하겠다고 말했다.

하루 10시간씩 4일 동안 강행군하여 남극 최고봉인 ‘빈슨메시프(4,897m)’ 정상을 밟은 알피니스트 박영석씨(39·골드윈코리아 이사)는 “이제 남은 것은 남·북극점 딱 두 군데를 정복하는 것”이라며 “어떤 난관이 닥쳐도 포기란 없다”며, 그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산악 그랜드슬램을 눈앞에 두고 있다.

마해영 선수나 박영석씨처럼 도전하는 사람이 그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으며, 끝없는 도전으로 진기록을 세운 사람도 있다. 1년 4개월만에 4개 기능장 따낸 ‘기능명장’ 현대중공업 이동섭 과장이 그 주인공이다.

현대중공업 기술교육원에서 후배 기능인을 가르치고 있는 그는 보통 몇 년 씩 도전해도 따기 어렵다는 기능장 자격증 시험에서 국내에서 유일하게 4회 연속으로 합격하는 진기록을 세웠다. 그는 “경험만 가지고 일을 하게 되면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론적인 보완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기능장은 누구나 도전하겠다는 마음만 먹으면 성취할 수 있다”며 지금 당장 도전하라고 말하면서 자신도 업무에 필요한 2~3개 정도의 기능장에 더 도전하겠다는 꿈을 밝혔다.

만화로 보는 발명·특허 이야기

발명의 10계명 ③

아이디어를 빌려보자

김수/오해정 글/왕연중·그림/김민재